

# 고래 싸움 속 새우된 '수출 中企'



김승호의  
시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섀넌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청 기업이 해외로 가면서 동반진출한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 당시 8만8486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24년 현재 9만5905개로 늘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9만5229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 주춤했다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

은 2020년 당시 19.6%까지 증가해 20%를 넘는 듯 하다 이후 하락하며 지난해엔 16.8%까지 줄었다. 대기업, 중견기업 수출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활동반경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수출은 한류의 영향을 받은 화장품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수출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뷰티업체들의 공략에 한국 기업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현재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국격까지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한류가 언제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장품 수출도 풍전등화인 셈이다. 중고자동차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 2위에 이름을 올리며 화장품과 함께 선전하고 있는 대표 품목이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각국의 중고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연합해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중고차'(Safer and Cleaner Used Vehicles for Africa)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차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2020년 47개국에서 62개국까지 늘었다. 여기에 중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시장에 가세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한국의 중고차와 경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인 중고차도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 10곳 중 4곳 가량은 5인 미만 소기업이다. 10곳 중 7곳은 업력 10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이다. 총성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 보호무역의 담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래만 쳐다보다 바다의 중요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우의 씨를 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bada@metroseoul.co.kr

# 결제시장, '갈라파고스화' 끝내야



김정산의  
시선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설을 두고 카드업계의 관심이 크게 쏠린다. 기대와 다르게 애플페이가 한국 결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대비 가맹점 수가 현저하게 적은 만큼 결제 환경이 나쁜 것이 주원인이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상륙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의 비중은 15%를 안팎으로 본다. 이마저도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면 중소형가맹점의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대형 가맹점에서만 거래할 수 없으니 아이폰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간편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다.

이처럼 애플페이는 한국에서 실효성이 낮은 처지다. 관련 업계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가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간 애플페이는 사실상 현대카드만 영위하던 서비스였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에 진입한 지난 2023년 2월 신규 회원을 대거 유치하면서 '선제진입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신규 카드사 진입이 현대카드에 약제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회원이 신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갈아탈 것이라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에 신규 카드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현대카드 또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카드업은 결제업이다. 신용카드 발급수도 중요하지만 결제 활성화가 우선 순위라 의미다. 그간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의 독점체제 형태를 띤 만큼 NFC단말기

보급 속도도 지지부진했다. 신규카드사의 진입은 이같은 결제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제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IT강국'이란 별명에 맞지 않게 NFC 단말기 보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접 국가와만 비교해도 체감된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NFC단말기를 보급했다. 중국은 QR코드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애플페이 사용은 지난 2016년부터 이뤄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된 잔액은 1209조원이다. 체급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결제 시장은 '갈라파고스화'로 유명했다.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국제 표준에 못 미치고 고립됐다는 뜻이다.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이 결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길 기대해본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 2월 10일 (음 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눈치보다는 소신대로. 6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7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 소** 37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걸. 4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난감. 6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7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래야. 85년생 노후 차량정비 하는 날.
- 호랑이** 38년생 가까운 사람부터 신용을 쌓아가자. 50년생 고생은 많고 실속은 적고. 62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언덕이 질질. 7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만 비옥한 땅이 된다. 86년생 오죽하면 삼재 팔관 관재구설이라 했겠는가.
- 토끼** 3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 63년생 인색하면 고독이 계속된다. 75년생 사랑을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87년생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잘해야 열매를 가지 못한다.
- 용** 40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 남해 본다. 52년생 함격의 기쁨이 있다. 6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88년생 마음은 즐거운데 몸은 천근만근.
- 뱀** 4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현명. 53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65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발전도 있다.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러니 좋은 하루. 89년생 붉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 말** 42년생 생선이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54년생 소피 동료와 불화를 조심. 66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8년생 월급으로 은행적금을 시작해보라. 9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
- 양** 43년생 주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용을 지켜라. 55년생 남자 친구의 기대가 부담. 6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79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너무 짧다. 91년생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 원숭이** 44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56년생 양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8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오후유주는 하지 말도록. 9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 닭** 4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본인의 거짓말로 결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된다. 69년생 마음을 비우고 그냥 웃으며 살자. 8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기쁜 날도 있다.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 개** 46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5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70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82년생 목돈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달라는 자가 생긴다. 9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지출도 있다.
- 돼지** 47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59년생 큰 업체에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71년생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 83년생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지 말도록. 95년생 동창을 모임에서 승진 자랑 너무하지 않는 것이.



# 김상회의 四季 기도와 주술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란 마음을 모으되 진실한 참회도 전제가 된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나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해지면 자신의 껌질과 허영이 녹아내린다. 기도에 기도와 주술이 있다. 주술엔 어떤 심적 탐욕이든 헛된 욕망이든 그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다면 주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품격과 윤리는 들어 설 자리가 없다. 아마 마태복음의 한 구절로 기억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다. 여기엔 의미심장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본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바람은 그저 흑마술일 뿐이다.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이다. 화염경 입법제품의 한 부분인 보현행원품에도 사탄 발원은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대목도 보인다. 기도를 방자한 사탄 바람은 이미 발원이 될 수가 없다. 그저 탐진치로 버무려진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잘되기를...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 아프지만 실제로 이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와 주술의 효험을 듣는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이뤄지지 않아도 불만을 품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순하고 정하면 자리타당한 기도가 된다. 사되게 쓰면 끝이 허망한 주술일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8	6	5	2		3
		9			
		4	9	6	5
2	8			5	9
	2			3	
3	4	5		1	9
5		8	3	4	
			7		
7		2	9	8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6	9	2	7	9	2
2	9	7	2	9	6	1	8
9	1	2	7	8	6	2	9
6	9	1	8	2	1	9	7
8	2	8	9	7	1	2	6
7	6	9	6	2	9	8	1
9	8	2	9	6	7	2	8
2	2	9	1	8	6	8	7
8	7	6	2	1	9	9	2

**스도쿠3650**

**결합형스도쿠**

**컬러스도쿠11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